



금고 속의 보물





1. 우리 아파트에는 할머니를 잃고 혼자서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. 그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, 모두 결혼해 자기 생활에 바쁘다는 핑계로, 몇 달 만에 한 번 씩 들러 저녁식사를 같이 하거나 명절날 잠시 얼굴을 내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.





2. 할아버지 부부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서 어떻게든 자식들 셋은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세 아들 모두 공부도 열심히 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.





3.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착하던 세 아들들이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. 큰 아들은 처가에서 차려 준 병원원장이 되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았고 둘째 아들도 며느리와 같이 큰 가게를 한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.





나. 할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이라도 좀 붙이려고 하면 세 아들은 돈 부쳤다는 말만 하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그러던 어느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. 아들들은 서로 할아버지를 모시지 않겠다고 싸웠고,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할아버지는 혼자 살테니 걱정말고 올라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. 혼자 남겨진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 싶었습니다.





5. 그러던 어느날, 목수 일하는 친구를 찾아가 집에 놓아 둘 큰 금고 하나 짜달라고 한 후, 무언가를 넣으시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 안방에 두었습니다. 명절이 되자, 모두가 할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.





6. 그 때 세 아들과 며느리는 안방에 놓인 커다란 금고를 보게 되었습니다. 자식들은 “아버님, 저 금고 안에 뭐가 있어요?” 하고 물었지만,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. 할아버지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자식들은 금고를 열어 보았습니다. 묵직한 소리가 나자 자식들은 금고 안에 분명 귀한 것이 들어 있을 거라 여기며 내심 기뻐했습니다.





7. 세 아들들은 서로 할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성화였고, 이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누구의 집에도 가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난 후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날마다 안부인사를 여쭙고 주말마다 찾아와 맛있는 음식도 해 드리고 좋은 옷가지와 선물들을 사다 드립니다. 그리하여 몇 년동안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호강을 받으며 사셨습니다.





8.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고, 세 아들들은 할아버지 장례식이 끝나
 기가 무섭게 안방에 놓인 금고 자물쇠를 부숴줍니다. 그런데 그 안에는 아들들이 기대했던 돈
 이나 귀금속 대신 깨진 유리조각들만 가득했습니다. 아들들은 어이가 없고 분해서 죽은 아버지
 에게 원망의 소리 질러 놓았습니다. 그러다가 유리조각들 아래에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
 것을 발견했습니다. “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진정한 마음으로 공경하렴. 대가를 바라며
 하는 효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단다.” 세 아들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이기심을 깨닫고 후회
 의 눈물을 흘렸습니다.

